

(논) (단)

2천년엔 식량부족 1천만톤 추정 식생활양식 자연추세에 맡기면

□ 식량문제의 현황과 그 대응책 □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朱 龍 宰

1. 세계식량문제의 현황

5억 인구가 영양부족 상태

세계곡물생산은 식부면적의 확대와 기술개발에 힘입어 연도간에 기복은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지난 10년 (1969-79)간에 세계곡물생산은 연평균 2.8% 증가하였고 이는 동기간의 인구증가율 2.1%를 상회함으로써 1인당 세계곡물생산량은 연평균 0.7%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이 기간중에 선진국의 곡물생산량은 연평균 2.7% 증가한데 반하여 인구증가율은 0.8%에 머물러 1인당 곡물생산은 연평균 1.9% 증가하여 왔다(표 1). 한편 開發國의 경우 곡물생산의 증가율은 동기간에 연평균 2.8%로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인구증가율이 2.6%로서 선진국의 0.8%보다 3배이상이나 높은 관계로 1인당 곡물생산량의 증가율은 0.2%에 불과하였다. 開發國중 특히 인구증가율이 높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지역에서는 1인당 곡물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여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국가도 있다.

<표 1> 지역별인구, 곡물생산 및 1인당 곡물생산량 추이

구 분	지 역 별	69~71평균 (A)	77~79평균 (B)	B/A (%)	1969~79 연평균증가율
인 구 (백 만 명)	선 진 국	1,075.9	1,146.7	106.6	0.8
	개 도 국	2,544.7	3,111.7	122.3	2.6
	세 계	3,620.6	4,258.4	117.6	2.1
곡물생산 (백 만 ㄹ)	선 진 국	654.0	807.2	123.4	2.7
	개 도 국	590.7	734.6	124.4	2.8
	세 계	1,244.7	1,541.8	123.9	2.8
1인당곡물 생산(kg)	선 진 국	607.9	703.9	115.8	1.9
	개 도 국	232.1	236.1	101.7	0.2
	세 계	343.8	362.1	105.3	0.7

자료 : FAO, Production Yearbook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1인당 곡물생산량이 정체 내지 감소한 반면에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곡물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식량이 부족되어 곡물수입량이 현저한 증가추세에 있다. 開途國의 곡물수입량은 1970년에 4,450만톤이던 것이 1979년에는 8,120만톤으로 9년간에 근 2배나 증가하였고 1979년도 開途國의 곡물도입량은 생산량의 약 14%나 되는 수준이다.

앞으로 開途國이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될 경우 식량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들 국가들이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보다 심각한 식량부족상태에 봉착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최근의 세계식량수급은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지역간의 격심한 분배의 불균형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일부 개도국들은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유엔(UN)의 한 추계에 의하면 현재 개발도상국에는 식량부족으로 약 5억에 달하는 인구가 영양부족상태에 있으며, 영양부족으로 인한 사망자도 하루평균 1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일 먹는 식량의 약 반정도를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니며 필요한 식량을 적기에 구입하지 못할 경우 식량위기가 우리에게도 닥쳐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비교우위론은 타당성 희박

최근에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값싼 농산물의 수입을 개방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비교우위론은 완전고용과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등을 전제로 하는 정태(靜態)이론이므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농업여건 하에서 적용하는 데는 이론적 타당성이 희박하리라 본다. 또한 수출보호에 의하여 낮게 형성된 외국농산물 값과 국내가격과의 비교가 수입 자유화의 근거가 될 수 없음도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비교우위론에 기초한 수입자유화는 이론상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가지려면 필요한 식량을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성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식량수급전망과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현재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일부 서구국가에 국한되어 있는데 반하여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는 100여개국에 달한다. 즉, 1977-79년간에 품종별 3대 수출국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대두는 96.8%, 옥수수는 85.7%, 소맥은

58.5% 그리고 쌀은 56.5%의 순이었다. 특히 미국은 대두, 옥수수, 소맥에서 제 1위의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쌀수출에 있어서도 태국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곡물수입국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곡물수출국은 식량을 무기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국제곡물시장은 몇개의 곡물 「메이저」에 의하여 좌우되는 독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관계로 근소한 곡물의 수급불균형이 생겨도 이들 곡물메이저들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곡물의 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실례를 들면 1972년에 세계의 주요 곡창지대에 흉작이 들어 곡류(곡물과 두류)의 생산량은 2.4% 감소하였으나 곡가는 前례없이 폭등하여 소맥값은 1972년 1월~1974년 2월 사이에 4배, 옥수수가격은 1972년 1월~1974년 2월 사이에 무려 4.5배로 크게 올랐다. 이와 같이 국제곡물가격은 수급의 불균형, 정치,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급격한 변동을 할 뿐만 아니라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손쉽게 구입할 수 없어 식량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1980년에 쌀의 흉작으로 58만톤의 외미를 도

<표 2>

주요수출·수입국의 곡물시장점유율(1977-79평균)

단위 : 1,000%, %

	수 출			수 입		
	국 명	수 출 량	구 성 비	국 명	수 입 량	구 성 비
쌀	세 계	10,858	100.0	세 계	10,573	100.0
	태 국	2,418	22.3	인도네시아	1,908	18.0
	미 국	2,289	21.1	이 란	530	5.0
	중 공	1,418	13.1	소 련	502	4.7
소맥	세 계	80,400	100.0	세 계	78,792	100.0
	미 국	31,810	39.6	소 련	8,951	11.4
	캐나다	14,440	18.0	중 공	8,286	10.5
	호주	8,749	10.9	일 본	5,722	7.3
옥수수	세 계	67,658	100.0	세 계	66,155	100.0
	미 국	49,955	73.8	소 련	10,544	15.9
	아르헨티나	5,762	8.5	일 본	10,337	15.6
	남아연방	2,284	3.4	스 페인	4,284	6.5
대두	세 계	23,176	100.0	세 계	22,978	100.0
	미 국	19,270	83.1	일 본	3,998	17.4
	아르헨티나	1,802	7.8	서 독	3,553	15.5
	브라질	1,361	5.9	네델란드	2,538	11.0

자료 : FAO, Trade Yearbook, 1979.

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 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식량수급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원인으로서는 20세기 후반부터 한랭화하기 시작한 지구의 이상기온현상과 에너지가격의 고등화에 따른 농업경영비(비료 및 농약가격과 기계사용비용)의 상대적인 등귀, 개간·간척비용의 고가화현상, 그리고 환경 및 생태계의 파괴 현상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식량공급면에서 각국의 개발 가능한 경작지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얼마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인구와 소득증가에 따른 폭발적인 식량수요증가를 따라 가기에는 너무나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수급사정 낙관 불허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세계식량

수급사정은 낙관을 불허하며 국제곡물시장은 여러가지 불안정한 요소가 있으므로 식량안보상 국민의 기본식량의 해외 의존도를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이밖에 농산물의 지나친 수입은 국내농산물가격을 하락시켜 농가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함은 물론 농업생산기반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농업생산은 공업생산과 달리 한번 생산기반이 파괴되면 회복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요하므로 국민의 기본식량은 최소한의 자급을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세계경제는 유가파동 등으로 불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開途國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려는 보호무역주의의 경향이 있고 석유공급을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질 것이 예상되므로 종전과 같은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한편 유가의 인상으로 원유수입에 대한 외화부담과 외채상환 등으로 외화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는 바 국내에서 자급이 가능한 농산물마저 수입할 수 있을 정도로 외화사정이 항상 좋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국민의 생존권을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산업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식량자급율을 적정수준에 유지하는데 정책의 우선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의 실례를 보더라도 「스웨덴」이나 「스위스」같은 중립국들도 유사시에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농업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식량자급율 80% (戰時에는 85%)를 국가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 국내 식량수급 추이

날로 떨어지는 식량자급율

인구증가와 소득의 향상에 따라 식량수요는 급증한 반면에 식량생산은 수요에 미달되어 식량자급율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

에너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전체식량의 자급율은 1968년에 85.2%이던 것이 1979년에는 66.4%로 현저히 하락하였으며¹⁾ 이는 국민식량의 약 40%를 불안정한 해외시장이나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료곡을 포함한 곡물의 자급율은 1965년의 93.9%에서 80년에는 54.3%로 하락하였으며, 1980년의 추곡홍작으로 1981년도 곡물자급율은 44.3%로 더욱 떨어졌다.

[註]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수급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9, 1980.3 pp.57-79

□ 식량문제의 현황과 그 대응책 □

곡종별로 자급율을 보면 1980년의 경우 서류, 잡곡 등은 자급이 되고 있으나 소맥의 자급율은 불과 4.8% 대두는 35.1%, 옥수수는 5.9%로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쌀은 1976-78년에 한 때 자급이 되었으나 최근에 병충해, 한해, 냉해 등으로 쌀생산이 감소한 반면에 쌀소비 편중의 결과 지난 3개년(1979-81)의 쌀 자급율은 70~8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양곡자급율이 하락함에 따라 양곡의 도입량은 1965년의 634천%에서 1980년엔 5,041천%으로 약 8배 증가하였고 1980년도 양곡도입금액은 약 10억달러로서 1965년의 약 20배나 되는 수준이다. 특히

1980년의 이상기상으로 쌀생산량이 최근에 유례없는 흉작을 기록함으로써 1981년도에 약 1,500만석의 외미를 도입 하였고 이에 소요된 외화는 무려 10억불에 달하였다.

식량자급율의 하락원인

곡물의 자급율이 1965년의 94%에서 1980년에는 54%로 현저히 감소한 것은 이 기간중에 곡물소비량은 77.5% 증가한데 반하여 곡물생산량은 불과 3% 증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표 3).

곡물의 소비량이 위와 같이 현저히

<표 3>

곡종별 수급추이

단위 : %

곡종별	수요			생산		
	1965(A)	1980(B)	B/A%	1965(C)	1980(D)	D/C(%)
쌀	3,925	5,786	147.4	3,954	5,136	129.9
보리	1,377	1,407	102.2	1,459	811	55.6
밀	682	1,924	282.1	184	92	50.0
옥수수	97	2,517	2,594.8	35	149	425.7
콩	163	733	449.7	163	257	157.7
서류	936	515	55.0	936	515	55.0
잡곡	133	98	73.7	133	88	66.2
계	7,313	12,980	177.5	6,864	7,048	102.7
미곡제외계	3,388	7,194	212.3	2,910	1,912	65.7

자료 : 농수산부 식량국

□ 식량문제의 현황과 그 대응책 □

증가한 것은 1965~80년간에 축산물의 수요증가로 사료곡인 옥수수의 소비량이 무려 26배로 증가하였고 콩의 수요는 4.5배, 밀의 그것은 2.8배로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곡물생산량은 1965~80년간에 불과 3% 증가에 머물렀는데 이는 이 기간중에 옥수수, 콩 등의 생산량은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보리쌀과 서류의 생산량이 약 半정도로 줄었기 때문이다(표 4).

식량자급도저하요인을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1) 수요측면

1) 인구증가

1965~80년간에 인구는 약 33.8% 증가하고 1인당 곡물소비량은 29%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인구증가는 곡물수요증가의 주요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축산물 수요증가에 의한 사료곡 수요증가

사료곡의 1인당 소비량은 1965~80년간에 무려 5.1배로 증가하였으며 이 증가율은 육류소비증가율의 거의 2배나 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사료곡 소비량의 증가율이 육류

<표 4>

품목별 1인당 연간소비량 추이(1965~80)

단위 : kg

품 목 별	1965	1970	1975	1980	80/65(%)
육 류 소 비 량 ¹⁾	3.4	5.2	6.4	11.3	332.4
사 료 곡 소 비 량 ²⁾	12.7	18.1	22.1	64.8	510.2
식 용 곡 물 소 비 량 ³⁾	188.8	219.4	207.3	195.1	103.3
총 곡 물 소 비 량	201.5	237.5	229.4	259.9	129.0
주 요 곡 물 소 비 량 ⁴⁾					
보 리 쌀	51.7	36.8	39.7	14.1	27.3
감 자	3.2	3.0	2.4	1.7	53.1
고 구 마	23.7	12.8	7.3	4.1	17.3
쌀	131.5	130.5	119.8	132.9	101.1
밀 가 루	14.9	25.1	30.1	29.4	197.3

註: 1) 축협,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1981

2) 한국사료협회, 사료편람, 1981

3) 농수산부, 양곡수급실적, 각년도

4) 농수산부, 식품수급표, 1980년도(단, 서류는 생서증량을 정곡증량으로 환산하였음. 감자: 20%, 고구마: 31% 적용)

보다 높은 것은 배합사료의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1975년 이래 1인당 식용곡물소비량은 약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료곡의 소비량의 급증으로 1인당 곡물총소비량은 1975년의 229.4kg에서 1980년에는 259.9kg으로 현저한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곡물자급도는 축산물 소비량의 증가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국내증산이 용이한 곡물의 소비량 격감

자급이 쉬운 보리쌀, 감자, 고구마 등의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부족한 쌀과 밀가루의 소비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급자급을 저하의 주원인의 하나라 하겠다. 보리쌀, 감자, 고구마 등의 혼식을 통하여 쌀 소비편중을 시정

하였다면은 상당한 의미도입을 줄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식량자급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증산이 용이한 식품의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식생활 양식으로 자급지향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2) 공급측면

(1) 경지면적의 감소와 경지이용을 저하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라 경지면적은 1965년의 226만ha에서 1980년에는 220만ha로 감소추세에 있다. 또한 맥류, 서류 등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경지이용율은 1965년에는 158%나 되던 것이 1980년에는 126%로 크게 하락하였다. 우리나라는 1인당 경지면적이 약 160평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경지가 적은 나라의 하나인

<표 5>

연도별 식량작물의 식부면적 추이(1965~80)

단위 : 천ha

연 도	식량작물합계	쌀	보 리	밀	서 류	두 류	기타잡곡
1965	2,953.2 (100.0) ¹⁾	1,228.1 (41.6)	827.0 (28.0)	92.9 (3.1)	212.6 (7.2)	365.4 (12.4)	227.2 (7.7)
1975	2,531.3 (100.0)	1,218.0 (48.1)	711.0 (28.1)	43.7 (1.7)	146.3 (5.8)	332.7 (13.1)	79.6 (3.2)
1978	2,286.4 (100.0)	1,229.7 (53.8)	554.4 (24.3)	17.1 (0.7)	112.6 (4.9)	313.8 (13.7)	58.8 (2.6)
1979	2,143.3 (100.0)	1,233.2 (57.5)	473.3 (22.1)	13.1 (0.6)	94.8 (4.4)	276.8 (12.9)	52.1 (2.5)
1980	1,994.1 (100.0)	1,233.0 (61.8)	330.7 (16.6)	27.9 (1.4)	92.4 (4.6)	255.5 (12.8)	54.6 (2.8)

註: 1) ()내 수치는 구성비일.

자료: 농수산부, 농림통계년보

□ 식량문제의 현황과 그 대응책 □

데 이용할 수 있는 農地마저 늘린다는 것은 식량자급도 제고면에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2) 농산물 가격지지의 미흡

식량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민에게 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가격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1975~80년간의 농산물가격 상승율은 농가구입가격 상승율에 미달되어 농가교역조건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데 이 역시 식량자급도 저하의 주원인의 하나라 하겠다. 농가교역조건은 1975년 이후 악화일로에 있으며 1980년에는 86.1%로하락하였다. 또한 미맥의 수매가격 인상을 역시 농가구입가격 인상율에 미달되어 미맥의 실질수매가격 인상을 역시 농가구입가격 인상율에 미달된 결과

미맥의 실질수매가격은 1975년이래 년도간에 다소 기복은 있으나 하락 추세에 있다. 1981년도 보리쌀 수매가격을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디프레이트하여 1975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환산하면 16,976원으로 되는데 이는 1975년 수매가격의 약 73% 수준에 불과하다.

3. 식량수급대책

식생활 양식 자연추세에 맞기면
2천년에는 1,000만톤이나 부족

식량수요는 인구와 소득의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반면에 식량생산은 경지면적의 제약 등으로 수요증가에 미달되어 식량자급율은 크게 하락될 전망이다, 예컨

<표 6>

농가교역조건 및 미맥수매가격 추이

단위 : 원/섬

구 분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농가구입가격지수	100.0	124.9	146.2	190.1	216.2	269.5	367.0
농가판매가격지수	100.0	124.0	144.6	188.5	209.1	254.8	316.0
농가패리티가격지수	100.0	99.3	98.9	99.2	96.7	94.5	86.1
명목쌀수매가격	19,500	23,200	26,000	30,000	36,600	45,750	52,160
실질쌀수매가격	19,500 (100.0)	18,575 (95.3)	17,784 (91.2)	15,781 (80.9)	16,929 (86.8)	16,976 (87.1)	14,213 (72.9)
명목보리쌀수매가격	11,100	13,000	15,500	18,500	22,000	26,400	29,700
실질보리쌀수매가격	11,100 (100.0)	10,408 (93.8)	10,602 (95.5)	9,732 (87.7)	10,176 (91.7)	9,796 (88.3)	8,093 (72.9)

대 식생활양식을 자연추세에 맡길 경우 2,000년도에 식량부족량은 약 1,000만% 이나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세계 식량사정과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막대한 양곡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국민의 생존권을 항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량자급도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장단기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소비의 고급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으나 지나친 식품소비의 서구화는 식량의 해외의존도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균형영양을 공급하는 동시에 식량자급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한국적 식생활양식의 정착화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의 적정영양목표를 설정하고 이 영양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기식량수급계획의 작성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장기식량수급목표가 설정된 연후에는 이 목표달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식량증산책과 식생활개선시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식량자급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한 가격지지가 선행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필요하므로 가격지지에 의한 농가소득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성제고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도농간의 소득균형을 위하여 농의소득증대의 획기적인 대책이 요청된다. 또한 위와 같은 증장기 조건이 성숙되기까지는 적절한 가격지지정책은 지속하되 현재 방식과는 달리 비인플레이적인 자금조달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양특적자는 일반회계나 도입곡물에 부과금을 징수하여 조성한 기금에서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생산기반확충 · 품종개발등 지속적투자확대 선행돼야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기반의 확충과 품종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농업연구지도사업비는 농업 GNP의 0.6%로서 지극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 분야에 획기적인 투자의 확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우수한 두뇌가 신품종 개발을 비롯한 각종

2) 주용재, 식량수급전망과 인구문제, 2000년대를 향한 한국의 인구문제와 정책방향, 가족계획연구원, 1981

□ 식량문제의 현황과 국 대응책 □

업분야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하여 소망스럽다.

우리나라의 1인당 경지면적은 약 0.06ha로서 극히 제한되어 있다.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와 공업화의 과정에서 상당한 농지가 잠식될 것이므로 경지의 제약은 더욱 심각하리라 본다. 농촌진흥청의 추정에 의하면 현재 개발가능한 토지가 약 113만ha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곳부터 개발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경지면적의 유지가 절실히 요청된다. 또한 기존농지의 질적 증대를 위하여 농지의 구획정리와 관배수시설의 확대는 물론 지력증진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동물성 식품의 공급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므로 어느정도 축산물 공급의 증대는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식품소비의 서구화는 사료곡의 수요급증으로 식량의 해외 의존도를 상당히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선진국에서 동물성식품의 과다 섭취는 고혈압, 비만증 등 각종 성인병의 주원인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을 보아 지나친 동물성식품의 확대는 영양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리라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형편에 알맞고 균형잡힌 한국적 식생활 양식을 가격정책과 영양교육 등

을 통하여 토착화하여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인 식량안보면에서 소망스럽다.

보리소비 적정수준 유지 쌀소비 적절히 억제해야

식량의 자급도를 적정수준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에 적합한 주식인 미백의 자급기반을 견고히 다져 나가야 하리라 본다. 특히 현재와 같이 미백생산이 불안정한 여건하에서는 보리소비를 적정수준에 유지함으로써 쌀의 소비를 적절히 억제하여야 미백의 자급이 가능하다. 보리소비의 촉진을 위해서는 보리혼식의 장려는 물론 보리소비대체가 가능하도록 쌀과 보리쌀의 적정한 상대가격의 유지가 필요하며 보리의 가공식품개발에도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증산의 잠재력이 큰 서류와 잡곡의 수요도 최근에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이들 품목의 소비확대도 요청되고 있다.

도입사료에 크게 의존하는 축산물은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수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축산물의 소비는 적정수준에 억제하는 것이 식량자급도제고면에서 바람직하리라 본다. 앞으로 급증하는 사

□ 식량문제의 현황과 그 대응책 □

료수요에 대비하여 조사료의 국내 생산기반확충은 물론 사양기술개발으로 사료효율의 제고에도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식량증산면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식품의 유통과정과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확후 기술 즉 탈곡, 도정, 저장 및 수송 등의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모를 최소화하는 동

시에 조리법의 개선으로 식량의 손실을 줄임으로서 간접적인 증산에도 줄기찬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500만톤이 넘는 대량의 곡물 구매국이므로 부족한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는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정보망을 확대하고 일본과 같이 미국 등 세계곡물시장에 기업진출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참여를 서둘러야 하리라 본다.

◎◎◎ ◎◎
농약의 혼용

병해충의 발생시기가 비슷한 것을 동시에 방제하기 위하여 2~3가지 농약을 섞어서 살포함으로써 노력절감으로 인한 방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약제의 성질에 따라 혼용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약제를 구입할 때는 농약혼용가부표에 따라 가급적 혼용이 가능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혼용할 수 없는 것을 혼용하게 되면 오히려 약해를 일으키고 약효를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